

OODB 시장 선도한다는 개척정신 충만

데이텍은 지난해 9월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스토어를 공급하면서 국내 데이터베이스 시장에 뛰어 들었다. 현재의 시장보다 미래의 시장을 예상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데이텍을 찾아가 봤다. <글/박민식 기자>

박 청수 기술실장은 "현재 시장에서 금융·통신·엔지니어링 등 첨단 분야와 폭발적인 Web 시장에서 요구되는 복잡하고 분산화된 데이터 구조의 관리, 그리고 24시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부족한 점인 비디오, 이미지, 2D/3D Graphics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나 정보 분석에 필요한 time series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해야만 합니다."라고 지적하며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인 오브젝트스토어가 이런 여러가지 시장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오브젝트스토어는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미국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천여개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으며, 검색·대화적 데이터 갱신·기존 데이터에 Web으로부터의 액세스 등 보다 우수한 성능의 서비스를 Web에 부가할 수 있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이다.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지닌 Web 접속 제품으로 Object Forms를 비롯, 기존의 RDB와 상호 운용을 실현한 Connectivity 제품, Java 관련 제품 등

향후 Web에 요구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제공한다.

확장성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타입의 확장성과 더불어, 데이터 상호 관련 표현이 중요하다. RDB나 ORDB에서는 논리 키를 이용해 데이터를 연관시키는데 반해, 오브젝트스토어에서는 각각의 데이터를 직접적인 링크에 의해 연관시키고 있다. 때문에 검색에 의하지 않으면서도 빠른 액세스가 가능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설정 및 확장이 쉽다. 나아가, 이런 강력한 relationship은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며, 개발 생산성을 높여준다.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에 최적의 성능

독자적인 가상 기억 매핑 아키텍처로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완전 자동화하고, 검색에 의하지 않는 다이렉트·네비게이션·액세스를 실현한다.

타사 툴, 라이브러리와 통합 용이성

C++와의 완전한 이진 호환성 및 시판되고 있는 툴이나 라이브러리를 데이터

베이스 용으로 쉽게 전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데이텍은 오브젝트스토어의 편리성과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인터넷과 자바를 통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환경 도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98년은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 OODB의 장점을 인식시켜 기존의 ORDB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OODB의 특징을 살려 전자통신, 중공업, 연구소 등 복잡한 모델링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영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검색엔진으로 유명한 엑사이트사가 오라클에서 오브젝트스토어로 전환한 예와같이 인터넷 환경에서는 OODB가 적합하기 때문에, 인터넷 및 인트라넷 지원 분야를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라고 소홍선 마케팅 실장은 밝혔다.

데이텍은 영업을 시작한지 불과 6개월이지만 국내 OODB 시장의 선두주자라는 이미지를 굳힐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 매출 목표를 30억원으로 책정한 데이텍은 현재 여러 기업과 거래 성사를 위해 활발한 영업을 펼치고 있다. <문의처 796-8282> 